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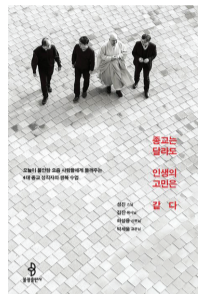
네 명의 성직자가 들려주는 '행복한 인생'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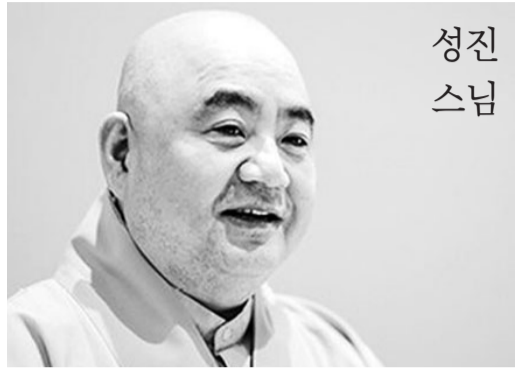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성진 스님의 지음



“만남중장단”이라는 모임이 있다. 성진, 김진, 하성용, 박세웅은 각각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소속 성직자들로 함께 노래하고 이야기하며 세상과 만난다. 4개 대표 종교인들이 하나의 목표로 만나고 대화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보여주듯 종교의 벽은 높고 견고하다. 그러나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 계기가 된다.

성진 스님은 과거로부터 조금씩 쌓여온 인연의 결과라고 한다. 그는 군중장교 시절 여러 신부님, 목사님과 11주라는 시간을 훈련소에서 보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어느 날 신부님이 가져온 초코파이를 휴비탁에 주저앉아 나눠 먹으면서 정이 싹텄다.



성진 스님

“자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여기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4대 종교 성직자들이 행복에 대해 토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 권의 대담집을 펴냈다.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라는 제목이 시사하듯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갖고 있는 삶의 문제들에 초점을 뒀다.

성진은 백양사 무지월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공군 군중장교를 지냈다. 현재 조계종 남양주 성관사 주지,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종교 간의 대화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진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종교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여러 대학에서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지금은 (사)종교인평화봉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종교 간 대화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김진 목사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먼저고 행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하성용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속 사제로 2009년 사제서품을 받은 후 여러 본당에서 사제생활을 했다. 현재 서울대교구 사회사무국에서 부국장 겸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박세웅은 2008년 정식 교무로 출가했으며 이후 원불교 교육부 정책인재로 선발돼 7년간 동양철학을 공부했다. 현재는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연구활동 및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책은 ‘행복’이라는 대주제를 모티브로 4명의 종교인이 종교적 신념과 견해를 주고받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사실 행복은 주관적이어서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다. 장삼이사들은 행복이라는 말 자체를 떠올리기도 힘들 만큼 어렵고 분주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저자들은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성용 신부

“저는 제 행복이 누군가에 의해 좌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박세웅 교무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행복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 아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남들과 비교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성용 신부는 “행복이든 불행이든 내가 있기에 의미가 생겨나지. 그렇게 보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로서의 ‘나’라는,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인가. 지금의 나, 살아 숨 쉬는 나를 향한 만족과 감사야말로 행복의 시작과 끝이란 생각입니다”라고 언급한다.



박세웅 교무

“누군가의 희망이 될 때,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자신을 괴롭히는 정체를 알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성진 스님은 “생로병사의 문제까지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불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절대 행복에 이르는 사성제(四聖諦) 가르침입니다”라며 “괴로움을 알고 그것을 소멸하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입니다”라고 말한다.

김진 목사는 행복을 관통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을 ‘생명의 에너지’로 규정한다. 그는 “우리 안의 에너지가 시기, 질투, 불안, 두려움 같은 것들로 가득하다면 삶은 불행의 연속일 것”이라며 “반대로 사랑, 자비, 감사, 창조적 에너지가 가득하다면 삶은 행복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얘기한다.

〈불광출판사·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별 작가, 히스토리

성희승 지음



성희승 작가는 ‘세묘화 기법’을 개척한 작가다. 생명의 빛을 품은 별무리를 캔버스에 미묘한 색의 변주로 표현했다. 지난 2022년 파리의 루브르 미술관과 프랑크푸르트에서 초대 전시를 개최한 바 있다.

성 작가는 홍익대 미술과 뉴욕대학교NYU에서 석사와 골드스미스 런던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국민대에서 미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작가의 이력은 미술에 대한 지난한 외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 작가가 에세이 ‘별 작가, 히스토리’를 펴냈다. 이번 책에는 글과 그림에 대한 단상을 비롯해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작가의 사유는 물론 창작활동으로 쌓은 흔적들을 만날 수 있으며 사람과 세상에 대한 관점 등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빛의 신비를 찾아 뚜벅뚜벅 걷는 사람들이다”며 “나 또한 걷는 사람이다”고 말한다.

책은 모두 다섯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별 빛’, ‘우주 숲’, ‘피, 땀, 눈물’, ‘크리스마스’, ‘모스부호’ 등이 그것이다. 각각의 에세이는 글을 쓰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마치 작가는 그림을 그리듯 글을 쓰고 글을 쓴듯 그림을 그린다는 느낌을 준다.

저자는 “작품과 삶에 대한 회한과 반성, 그리고 상처의 끝자락에 놓인 수많은 기억이 하나씩 정리되어 갔다.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지만 한 자 한 자 써 내려가며 쌓이고 쌓인 가슴 속 아픔을 씻어낼 수 있었다”며 “지난날 내 삶의 여정을 통과하며 쌓아온 삶과 생각, 이런저런 일들이 정돈되었고, 창작의 의욕도 가을의 색채처럼 오묘하게 스며 들고 솟아올랐다”고 말했다.

〈학민사·2만3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를 움직인 문장들

오하림 지음



“모든 것을 즐거워하던 청춘들은 말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다 지치면 두 번째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다고.” (예능 ‘신서유기 외전: 꽃보다 청춘’ 위너 편)

“좋은 패스는 달리는 사람에게 날아간다.” (광고 ‘리코루트’) “하루 15분이어도 좋으니 인간이 만들지 않은 것을 보는 게 좋다.” (‘약식당 오가와’ 요로 다케시의 인터뷰)

10년차 카피라이터 오하림이 인생의 방향이 되어준 문장들을 엮어 책으로 펴냈다. ‘나를 움직인 문장들’은 단순한 문장의 모음이 아니라 그 문장을 이리저리 굴러 보면서 문장에 담긴 의미를 나름의 기준으로 해석해 내놓은 에세이다.

저자는 스무 살부터 ‘문장 모으기’를 좋아했다. 그가 모은 문장은 대단한 위인의 말이나 명언보다는 광고 카피나 책 속 한 줄, 어느 예능 프로그램의 게스트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드라마나 영화 속 대사 등 일상에서 마주한 평범한 것들이다.

문장을 하나둘 수집하다 보니 다양한 출처의 문장들이 모였고, 문장을 모아놓고 보니 혼자만 보기에 가까운 생각이 들었다. 문장들을 엮어 책 형태로 제본해 친구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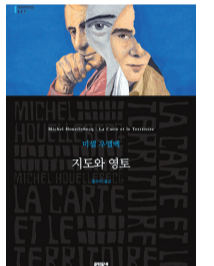
“내 보물상자 속 문장들이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다. 책 속의 모든 문장은 나의 감정을 움직였고, 나를 당장 행동하게도 했다. 하나의 진리만 알던 나의 생각을 바꿔준 문장도 있고, 나를 반성하게 만든 문장도 다수다. 이 문장들이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움직이게 될지는 이제 읽는 사람의 몫이 되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이 책의 어딘가 당신의 문장이 하나쯤은 있길 바란다.”

〈샘터·1만7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지도와 영토

미셀 우엘벡 지음, 장스미 옮김



소설 속 가상의 현대미술가 ‘제드 마르탱’의 삶, 고뇌, 예술활동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그리는 현대문화예술의 지형도.

프랑스 문학계의 거대한 태풍이라 평가받는 미셀 우엘벡이 새로운 소설 ‘지도와 영토’를 펴냈다. 작품집은 2010년 공쿠르상을 수상했으며, 평단에서 “소설을 통한 21세기에 대한 정확한 비평”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부르주아 가정에서 성장해 남부러울 것 없던 주인공 ‘제드’. 그는 어머니의 자살, 사업으로 바쁜 아버지로 인해 외로운 학창 시절을 보낸다. 제드는 예술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졸업 후 상업사진을 찍으며 우연히 미술관 지도에서 ‘미학성’을 발견한다. 이를 계기로 제드는 ‘지도 시리즈’라는 작품을 제작한다.

제드는 지도는 영토보다 흥미롭다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고 문화계 혜성으로 떠올랐으나 돌연 종적을 감춘다. 이후 작업세계를 사진에서 회화로 확장하면서 ‘직업 시리즈’, ‘기업 연합 시리즈’ 등을 발표, 예술계의 이목을 끌었다.

소설은 예술가의 등장부터 7년 간의 두문불출, 성공기까지를 포괄한다. 자기 자신과 대결하는 제드의 예술가로서의 면모, 고독하게 살아가는 모습 등을 진솔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소설 속에 자기 자신을 등장시키기도 했다. 제드는 아버지, 발문을 쓰는 작가 ‘우엘벡’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점차 세상을 이해하려는 욕구를 키워 나갔고 말년에는 이들을 회상한다. 나 자신을 작품 속에 등장시키고 이를 3인칭으로 바라보면서 ‘소설 밖의 나’에게조차 자조적인 시선을 가하려는 시도는 이제롭다.

저자는 소설적 자기비판과 동시에 ‘나’의 목소리를 세계 속에 견고히 구축했다. 문학을 통해 문화비평의 영역까지 겸하는 작품은 오랜만이다. 〈문학동네·1만8000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키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1월호

2023년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OpenAI

첫 GPT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 ‘예술하는’ 챗 GPT, 인간은 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 인공지능(AI) 등장하는 SF 영화 4편
- AI로 그림 그리기 도전
- 진화하는 생성형 AI
- AI가 바꾸는 대중문화

멋과 함께
고흥 여행

우주 체험
분청사기
팔영산 숲

화제의 전시 ‘임원식 컬렉션’ 전
평생 모으고 간직한 예술의 행복을 나누는 자리

2024년 소비 트렌드
올 한해 아는 만큼 보인다
키워드로 읽어보는 2024년

신년기획
2024년 더 풍성하게, 기대되는 문화콘텐츠들

이은

‘길위에 김대중’ 제작 명필름 대표

“밭이 땅에 닿아 있는 영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예향 창간 40주년, 남도투어①

눈 내리는 남도 여기가 설국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④
모여드는 예술가들
미술관 넘치는 섬, 제주도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⑥

짧고 빠른 패스 ‘광주식 축구’ 낳은
광주 축구전용구장

평인의 예술가와 친구들 ②
아마구치 타카시 “미니멀 아트 알리자”
한·미·일 작가 오작교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⑧
12·12 사태 44년 만에 첫 씻김굿,
현대사 영화의 봄 올라